

##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권 은 미                      신 민 섭                      김 은 정<sup>†</sup>

서울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360명의 대학생에게 내현적 자기애 척도, 사회적 자기 효능감 척도,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한국판 사회적 공포 척도를 실시했다. 수집된 자료는 구조 방정식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적 자기 효능감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공포증을 유발하는 동시에, 내현적 자기애 그 자체로도 사회공포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공포증간의 관계를 밝히고,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자기 효능감을 통해 사회공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힘으로서 사회공포증의 치료적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사회공포증, 내현적 자기애, 사회적 자기 효능감, 매개 효과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sup>†</sup> 교신저자: 김은정,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Fax: 031-219-2195, Tel: 031-219-2737, E-mail: Kej@ajou.ac.kr

사회공포증은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또는 수행 상황에서의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보이며, 그런 상황에서 창피하고 당황스럽게 행동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으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1994). 사회공포증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정신장애 중 하나로 삶의 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Barrera & Norton, 2009) 알코올, 약물 남용, 우울증, 자살, 사회적응의 어려움과 같은 다양하고도 심각한 기능적 장애를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그 원인과 치료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사회공포증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공포증의 기저에 자신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다는 점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그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거절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공포증의 발생, 유지 및 치료에 있어 ‘인지’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김은정, 1999),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사회공포증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공포증의 인지적 특징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사회공포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애적 욕구에 대해서는 간과해왔다. 사실,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에 더욱 과민한 것은 결국 남들에 비해 잘나고 싶고, 특별한 인상을 주고 싶다는 웅대한 자기애적 욕구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높은 기준이 사회공포증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가정하는 일군의 연구들은 이러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Goldfried & Sobocinski, 1975,

Juster et al, 1996; Leary & Kowalski, 1995). 하지만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기애는 자신만만하고,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과도하여 대인관계 상황에서 외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공포증과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며, 이는 경험적 연구에서 역시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다(Emmons, 1984; Raskin & Novacek, 1989).

현대의 많은 이론가 및 연구자들은 웅대한 자기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표현 양상이 판이하게 다른 또 다른 유형의 자기애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여러 학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두 유형의 자기애를 구분해왔으나, 이 중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Kohut, 1971). Cooper(2000)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동일한 자기애적 역동을 지니나 다른 현상학적 특징을 가지는 이유를 방어태가 다르다는 점으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처럼 적극적으로 타인의 찬사를 요구하고 웅대성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를 방어하는 대신, 타인의 반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한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는 현상적으로 소심하며, 수줍어하고, 위축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사회공포증의 증상과 많은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공포증의 근원에는 외현적 자기애보다는 내현적 자기애가 자리잡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공포증과 내현적 자기애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Schurman, 2000; 신현민, 2009; 윤성민, 신희천,

2007; 이인숙, 2002; 장건희, 2007; 한혜림, 2004)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공포증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공포증이라는 증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애는 생애 초기에 발달하는 성격 특질이다. 여러 이론가들은 자기애적 성격이 초기 양육 환경의 실수에서 온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Freud, 1914; Kernberg, 1975; Kohut, 1971; Millon, 1996). 반면, 사회공포증은 일종의 증상 변인으로 후기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초기 양육 환경으로 인해 내현적 자기애의 성향을 가지게 된 아동이 발달 과정에서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하여 사회공포증이라는 증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Smolewska와 Dion (2005)은 내현적 자기애가 성인기 애착에 있어 개인차, 특히 불안 애착을 가늠하는데 예언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애인과의 관계를 비롯한 친밀한 관계에서 보다 높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애적 욕구나 자기애적 손상이 사회공포증의 근원이라면 사회공포증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들의 자기애적 특성에 대한 개입 역시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자기애는 성격 특성이기 때문에 증상을 다루는 치료에 비해 더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치료자의 입장에서도 더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치료 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만약,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공포증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 변인을 찾을 수 있다면 매개 변인에 대한 개입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를 근원으로 하는 사회공포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매개 변인으로는 수치심(한혜림, 2004), 경험 회피(윤성민 등, 2007), 자기 불일치(장건희, 2007), 비합리적 신념(신현민, 2009) 등이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국외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한혜림(2004)이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수치심이라는 변인은 자기애의 결과라기보다는 일부일 가능성이 많다. 내현적 자기애의 핵심에는 자신을 과장하여 보이려는 비밀스러운 소망과 관련된 깊은 수치심이 존재한다(Gabbard, 2002). Cooper(2000)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즉 스스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나 이상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기 평가와 관련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지나치게 높은 자기애에 대한 기준과 그로 인한 수치심은 내현적 자기애의 결과라기보다는 내현적 자기애라는 개념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공포증의 발생에서 인지가 주된 역할을 한다(조용래, 1998)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으로 발전하는 기제에서 역시 인지적 변인이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라는 개념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수치심과 같은 정서적 변인이나 경험적 회피와 같은 대처方略보다는 자기애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자기애 관련된 인지가 더 핵심적으로 사회공포증과 자기애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관련 인지적 변인인 사회적 자기 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했다.

자기 효능감이란, 특정 상황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며(Bandura, 1977),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기 효능감이란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해 바람직한 인상을 전달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자기 효능감은 사회공포증의 원인이 되는 인지적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Beck과 Emery(1985)의 도식 모형에서는 사회공포증의 발생과 유지를 부정적 평가가 일어날 확률은 과다 추정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낮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Leary 등(1995)의 자기 제시 모형에서는 사회공포증의 발생을 자신이 기대하는 인상을 타인에게 주고 싶다는 욕구(자기 제시 동기)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내적인 평가(자기 제시 기대)라는 두 요인의 함수 관계로 설명했다. 즉, 양자 모두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즉, 사회적 자기 효능감을 사회공포증의 원인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자기 효능감과 사회공포증 간의 관련성은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역시 일관되게 지지되어 왔다 (Edelman 1985, Hill, 1989, Muris, 2002; 신혜진, 2005, 조용래, 원호택, 1997).

하지만 사회적 자기 효능감은 그 특성상 사회공포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다른

근본적인 원인과 사회공포증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경환(2002)은 자기 효능감은 구조가 아니라 과정 혹은 기능을 의미함으로 과정 변인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았다. Maddux(2002)는 자기 효능감이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기대)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상황 특정한 성질을 가지며, 그 기능상 외부 요인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기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원희(2001)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낮은 자기 효능감을 보임을 밝혀냈으며, 박세란(2005)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자기 평가, 특히 사회적 자기 영역에서의 평가가 외현적 자기에 집단이나 자기에 성향이 없는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사회적 자기 효능감이 낮을 것임을 시사한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동기는 높으나 사회적 상황의 대처 능력은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사회공포증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되었던 Leary 등(1995)의 자기 제시 모형으로 설명 가능하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웅대한 자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며, 부정적인 피드백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Leary 등(1995)의 이론에서 말하는 성향적으로 자기 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잘나 보이면서 일체의 부정적인 피드백도 받지 않는 것을 사회적 목표로 하게 된다. 하지만 이 목표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은

낮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잦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내현적 자기애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들의 웅대한 자기애에 대한 환상이 클수록 이들은 더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초라함을 느끼게 된다. Leary 등(1995)은 자기 제시 동기와 사회적 효능감 간의 인과 관계를 설정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비합리적인 높은 기준은 자신이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감소시켜 사회적 자기 효능감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효능감을 매개로 해서 사회공포증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조 방정식 분석 시, 하나 이상의 모형이 자료에 적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 모형을 설정하여 비교 검증하는 것이 권장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자기 효능감이 사회공포증에 각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단순 효과 모형을 대안 모형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공포증 간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기존 연구들(Schurman, 2000; 신현민, 2009; 윤성민 등, 2007; 이인숙, 2002; 장건희, 2007; 한혜립, 2004)과 사회적 효능감이 사회공포증과 관련있다는 기존 연구(Edelman 1985, Hill, 1989, Muris, 2002; 신혜진, 2005, 조용래 등 1997)들을 토대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는 단순 모형을 본 연구에서 가정한 매개 모형과 비교 검증하여 매개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공포증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기 효능감이 유의미한 매개 효과를 보일 것이

라는 것이다.

## 방 법

### 연구 대상

경기도 소재 A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심리학 관련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응답 방식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무선 배포한 후 작성하도록 해서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360명의 학생 중 남학생은 139명(38.6%), 여학생은 221명(61.4%)이었으며, 연령분포는 18-29세였고, 평균 연령은 23세였다.

### 측정 도구

####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도구로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Ahkter와 Thompson(1982)의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비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45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강선희 등(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하위척도를 도출했는데, 이 중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요인 2: 9문항), 착취/자기 중심성(요인 3: 9문항)은 외현적 자기애와 공유하고 있는 공통 요인으로 나타났고, 목표불안정(요인 1: 9문항), 과민/취약성(요인 4: 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요인 5: 8문항)은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 요인으로 나타났다. 강선희 등

(2002)이 보고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1이었고, 각 요인 별 내적 합치도는 각각 .92, .82, .78, .84, .80이었다. 본 연구의 전체 척도 내적 합치도는 .94였고, 요인 별로 살펴봤을 때 고유 요인(요인 1, 4, 5)은 .94, 공통 요인(요인 2, 3) .90, 각 요인 별로는 각각 .91, .81, .82, .83, .80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자기 효능감 척도(Social Self-Efficacy Scale: SSES)**

사회적 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회적 자기 효능감 척도(SSES)가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기존의 사회적 자기 효능감 척도(조용래 등, 1997)를 조명숙(1999)이 수정, 개발한 것으로 기존 척도에 수록되어 있는 8가지 사회적 상호작용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발표 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5가지 발표 상황(조용래 등, 1999)을 추가로 포함시켜 총 13가지 사회적 상황을 제시하고,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11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요인분석에 따르면 본 척도는 ‘사회적 상호작용 상에서의 효능감’ 요인과 ‘공적 정제감 위협 상황에서의 효능감’의 두 가지 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조명숙, 1999). 조명숙(1999)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93이었고, 본 연구의 전체 척도 내적 합치도는 .90이었고, 각 하위 요인 별 내적 합치도는 모두 .88로 나타났다.

####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본 척도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상황에서 경험하는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불안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Mattick과 Clarke(1998)이 개발한 것으로 총 19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1)이 우리말로 번안한 19개 문항에 조용래, 김은정(2005)이 1개 문항을 추가한 총 20개 문항의 한국판 검사를 사용했다.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을 때(김향숙, 2001)와 20개 문항이었을 때(조용래 등, 2005)의 내적 합치도는 모두 .92였으며, 조용래 등(2005)이 보고한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계수의 범위는 .40~.72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4로 나타났다.

#### **한국판 사회적 공포척도(Social Phobia Scale, SPS)**

다른 사람에 의해 실제로 관찰되거나 관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Mattick 등(1998)이 개발한 척도를 김향숙(2001)이 우리말로 번안한 것이다. 척도는 총 20개 문항에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향숙(2001)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4였다.

#### **분석 방법**

자료의 기술 통계치를 분석하고, 연구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경로 분석을 통한 모형 검증을 위해서는 M plus 4.2가 사용되었다(Mythén & Muthén, 2006). 본 연구의 자료가 정상 분포하지 않아(사회적 자기 효능감: skewness=1.760, kurtosis=4.781) 로버스트 최대 우도법(robust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모형을 검증하기 이전에 각 잠재 변인에 대한 측정 변인들을 구성하였다.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

(CNS)의 경우, 선행 연구(강선희 등, 2002)에서 이를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 요인’과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공통 요인’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유 요인’과 ‘공통 요인’을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측정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사회적 자기 효능감 척도(SSES)의 경우, 선행 연구(조명숙, 1999)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상에서의 효능감’ 요인과 ‘공적 정체감 위협 상황에서의 효능감’의 두 가지 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각각을 사회적 자기 효능감에 대한 측정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공포증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불안을 측정하는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IAS)와 타인이 관찰하는 가운데 수행하는 상황에서의 불안을 측정하는 한국판 사회적 공포 척도(SPS) 두 가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들 각각을 사회공포증이라는 잠재 변인을 측정하는 측정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fit index)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해석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적합도 지수로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FI, TLI, RMSEA를 모형 적합성의 판단근거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CFI, TLI는 .90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라고 평가되며, RMSEA의 경우는 .50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80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미만이면 보통

정도의 적합도가 있다고 평가되고, .10이상이면 모형 적합도가 좋지 않다고 본다(홍세희, 2000).

## 결 과

표 1은 연구의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과 평균, 표준 편차를 표기한 것이다. 우선,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공포증을 측정하는 두 척도인 SIAS와 SPS 모두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내현적 자기애의 어떤 요인이 사회공포증과 더 관련이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현적 자기애를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과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요인과 외현적 자기애와의 공통요인 모두 사회공포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고유요인이 사회공포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불안을 가져오는 상황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공통 요인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불안을 측정하는 SIAS에 비해 관찰되는 상황이나 관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불안을 측정하는 SPS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자기 효능감과 사회공포증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적 자기 효능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경향성은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요인과 외현적 자기애와의 공통요인 모두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 요인과 공통요인이 사회적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해서 사회공포증으로 발전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해보았다. 우선, 모든 잠재 변인간의 양 방향적 관계를

표 1. 각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 및 각 변인들 간의 상관

	내현적 자기에			사회적 자기 효능감			사회공포증		평균	표준 편차
	내현적 자기애	고유 요인	공통 요인	사회적 효능감	상호작용 효능	공적정체감 위협효능	SIAS	SPS		
<b>내현적 자기애</b>									114.86	25.97
고유요인	.93**								69.01	18.01
공통요인	.82**	.55**							45.85	11.27
<b>사회적 효능감</b>	-.63**	-.66**	-.41**						79.95	40.70
상호작용 효능	-.61**	-.64**	-.39**	.96**					40.12	20.22
공적정체감위협 효능	-.60**	-.61**	-.41**	.97**	.85**				39.79	22.14
<b>사회공포증</b>										
SIAS	.74**	.80**	.42**	-.66**	-.66**	-.62**			46.41	14.58
SPS	.71**	.70**	.52**	-.52**	-.51**	-.49**	.73**		37.66	13.00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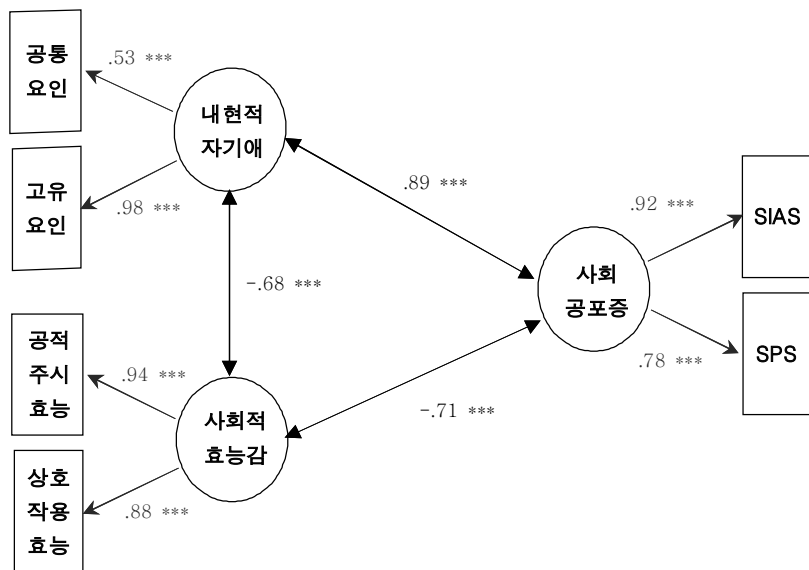


그림 1. 측정 모형

\*\*\*  $p < .001$ , \*\*  $p < .05$



가정한 측정 모형을 구성하였다. 측정 모형의 표준화된 경로 계수는 그림 1과 같다. 두 가지 매개 모형과 단순 효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단순 효과 모형(그림 2)은 모든 경로가 유의하기는 하나, 적합도 지수가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하지 않았다. 완전 매개 모형(그림 3)의 경우,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적합도 지수가 충분히 양호하지 않았으나 단순 효과 모형에 비해서는 더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매개 모형(그림 4)은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대부분의 적합도가 우수하거나 양호하였다.

완전 매개 모형의 경우 간명하나 자료를 충분히 잘 설명하지 못했고, 부분 매개 모형의 경우 모형의 간명도는 떨어지나 수집된 자료를 더 잘 설명했다. 이 경우에는 자유도의 변화에 따른  $\chi^2$ 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평가함으로써 두 모형을 비교할 수 있다. 자유도가 모형의 간명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표 2. 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대안 모형들 비교

	$\chi^2(df)$	TLI	CFI	RMSEA
단순효과	179.436(7)	0.678	0.850	0.262
완전매개	163.186(7)	0.709	0.864	0.249
부분매개	22.877(6)	0.963	0.985	0.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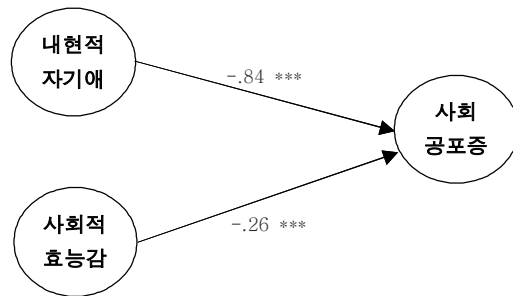


그림 2.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효능감의 단순 효과 모형

\*\*\*  $p < .001$ , \*\*  $p < .05$



그림 3. 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완전 매개 모형

\*\*\*  $p < .001$ ,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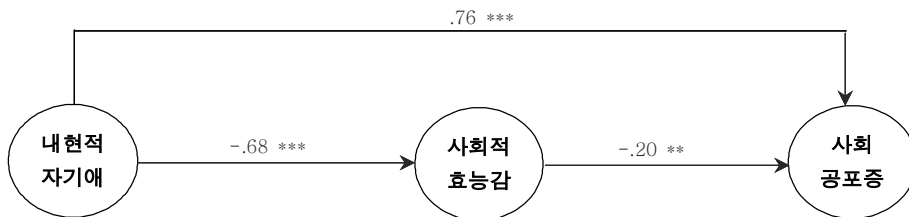


그림 4. 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부분 매개 모형

\*\*\*  $p < .001$ , \*\*  $p < .05$

$\chi^2$ 의 차이 값이 자유도의 차이에 비해 통계적으로 크다는 것은 간명도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그 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을 비교해본 결과, 자유도 차이가 1일 때  $\chi^2$ 의 차이는 140.309로 자유도 1일 때의 임계치인 3.8보다 훨씬 컸다. 이는 직접 경로를 추가함으로써 간명성이 떨어진 것에 비해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좋아졌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분 매개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부분 매개 모형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ron과 Kenny(1986)에 의해 제안된 Sobel 검증단계로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매개 효과는 유의하였으며( $Z=3.09$ ),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 요인과 공통요인이 사회적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해서 사회공포증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공포증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 공포증의 근본적 원인임을 밝히고, 어떤 기제로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 공포증으로 발전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공포증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변인으로 사회적 자기 효능감을 가정했는데, 연구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적 효능감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공포증을 유발하는 동시에, 내현적 자기애 그 자체로도 사회공포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

애가 사회공포증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공포증간의 관련성을 입증한 기존의 연구들(Schurman, 2000; 신현민, 2009; 윤성민 등, 2007; 이인숙, 2002; 장건희, 2007; 한혜림, 200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격장애의 특성상 내담자들은 성격장애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이차적 증상을 이유로 치료현장에 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져왔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로 인한 사회공포증으로 내담자가 치료현장에 왔을 때 역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에 관한 개입만이 이루어지고, 이들의 자기애적 욕구나 자기애적 손상에 대한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의 사회공포증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완전한 치료에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사회공포증이 있는 내담자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할 수 있고 임상현장에서 사회공포증을 치료하는데 역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공포증간의 관계를 사회적 자기 효능감이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해서 사회공포증으로 발전한다는 기제를 밝힘으로써,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명료화하고 통합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공포증의 자기개념이나, 자기제시 동기, 자기불일치 등, 기존의 사회공포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를 통합적으로 연결해주는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먼저, 본 연

구에서 사회공포증의 원인으로 가정하였던 내현적 자기애는 인정 욕구와 거대 자기 환상으로 인한 높은 내적 기준을 가지는 동시에 자기 평가는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자기 불일치가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불일치가 사회공포증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던 Higgins 등(1985)의 이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Higgins 등(1985)의 이론은 자기불일치가 직접 사회공포증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자기 불일치가 어떤 경로로 사회공포증을 유발시키는지 밝혀냈다는 점에서 자기불일치 이론을 좀 더 정교화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공포증을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 기대의 함수로 본 Leary 등(1995)의 자기제시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에 해당하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이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제시 동기와 유사한 개념이며, 사회적 효능감은 Leary 등(1995)의 이론의 자기제시 기대에 해당한다. 하지만 Leary 등(1995)의 이론이 자기제시동기와 사회적 자기 효능감 간의 인과관계를 상정하지 않았던데 반해, 본 연구 모형은 인정욕구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사회적 효능감의 원인이 된다고 봄으로써, Leary 등(1995)의 이론을 지지함은 물론, 이를 보다 정교화 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매개 모형은 내현적 자기애로 인한 사회공포증의 치료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가진다. 내현적 자기애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치료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자기 효능감은 개입을 통한 변화가 더 용이하다. 경험적 연구에서 역시 다양한 훈련 절차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Mathieu, Martineau, & Tannenbaum, 1993).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내현적 자기애라는 성격적 변인이 사회적 자기 효능감이라는 인지적 변인을 매개로 해서 사회공포증으로 발전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사회공포증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치료 개입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해서 사회공포증으로 발전한다는 기제를 밝힘으로써 앞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공포증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연구 결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 공포증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는데, 내현적 자기애의 두 하위 요인 중 고유 요인이 공통 요인에 비해 사회공포증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사회공포증 집단이 자존감이 낮고, 자기 개념이 부정적이라는 기존의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Clark & Arkowits, 1975; Cheek & Buss, 1981). 하지만 본 연구에 따르면 인정 욕구와 거대 자기에 대한 환상과 같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 요인 역시 사회공포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공포증 집단이 높은 내적 기준과 자기 제시 동기를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Goldfried & Sobocinski, 1975, Juster et al, 1996; Leary & Kowalski, 1995).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사회공포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왔던 부정적인 자기 관련 인지 외에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자기애적 욕구 역시 사회공포증의 발생과 유지에서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자

기개념과 높은 자기 제시 기대 및 인정 욕구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사회공포증에 대한 좀더 통합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경향성이 클수록 사회적 효능감은 낮아졌다. 이러한 경향성은 내현적 자기애가 낮은 사회적 자기 효능감을 보인다는 이원희(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기 효능감은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 요인과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나 인정 욕구/거대 자기 환상을 포함한 공통 요인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정 욕구에서 기인한 높은 자기 제시 동기 역시 사회적 효능감을 낮추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기 효능감이 낮을수록 사회 불안은 더욱 높아졌다. 이는 사회적 자기 효능감과 사회공포증간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들과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Beck et al., 1985, Edelman, 1985; Hill, 1989; Leary et al., 1995; Muris, 2002; 신혜진, 2005; 조용래 등, 1997).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피험자는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공포증과 같은 개념들은 임상적인 개념에 해당되므로 실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에 의해 얻어졌다. 따라서 도구의 특성상 피험자들이 방어적인 태도로 응답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향으로 반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경우, 평가에 대한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적인 면담을 포함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각 측정 변인을 동시에 측정된 횡단적 연구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공포증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나온 결과만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자기 효능감, 사회공포증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 패러다임을 이용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공포증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사회적 효능감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사회적 효능감이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모두 설명할 수 없었으므로 둘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매개 변인에 대한 탐색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현적 자기애를 근원으로 하는 사회공포증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이들의 사회공포증상이 유의하게 경감되는지를 확인해봄으로써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969-990.
- 김은정 (1999). 사회공포증 집단의 사회적 자기

- 처리 및 안전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향숙 (2001). 사회공포증 하위 유형의 기억 편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경환 (2002). 성격심리학. 범문사.
- 박세란 (2005).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 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신현민 (2009).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사회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변인으로. 건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혜진 (2005). 자기 불일치와 목표 성향 및 자기 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성민, 신희천 (2007).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 697-982
- 이원희 (2001). 자기애와 완벽주의, 적대감 및 자기 효능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인숙 (2002).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건희 (2007). 자기애와 자기 불일치 및 사회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명숙 (1999). 부정적인 사회적 사건의 발생 확률 판단 및 부담정도 판단과 사회적 상황에서서의 자기 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용래 (1998). 역기능적 신념과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가 사회공포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용래 (1999). 역기능적 신념과 사회공포증상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7-36.
- 조용래, 김은정 (2005). 가해염려를 동반한 사회공포증: 한국판 TKS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397-411.
- 조용래, 원호택 (1997).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인지적 평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에 대한 연구. 심리학의 연구문제, 4, 397-434.
- 한혜림 (2004).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91-215.
- Bar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rera, T. L., & Norton, P. J. (2009). Quality of life impairment i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ocial phobia, and panic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doi:10.1016/j.janxdis.2009.07.011*, in press.
- Beck, A. T., & Emery, G. (1985). *Anxiety disorders*

-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 Clark, J. V., & Arkowitz, H. (1975). Social Anxiety and Self-Evaluation of Interpersonal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36, 211-221.
- Cooper, A. (2000).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Elsa, & E. Ronninstam (Eds.),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London: Jason Aronson Inc.
- Edelman (1985). Dealing with socially embarrassing events: socially anxious and non-anxious groups compared.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281-288.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Freud, S. (1914).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 Gabbard, O. C. (2002). *Psychodynamic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y press.
- Golfried, M. R., & Sobochinski, D. (1975). Effect of irrational beliefs on emotional arous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04-510.
- Higgins E. T., Klein, R., & Strauman, T. J. (1985). Self-concept discrepancies and emotional vulnerability: How magnitude, accessibility and type of discrepancy influenc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1-15
- Hill, G. J. (1989). An unwillingness to act: Behavioral appropriateness, situational constraint, self-efficacy in shyness. *Journal of Personality*, 57, 871-890.
- Juster, H. R., Heimberg, R. G., Frost, R. O., Holt, C. S., Mattia, J. I., & Faccenda, K. (1996). Social phobia and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 403-410.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ary, M. R., & Kowalski, R. M. (1995). *Social anxiety*. New York: Guilford.
- Maddux, J. E. (2002).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Matieu, J. E., Martineau, J. W., & Tannenbaum, S. I. (1993). Individual and situational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self-efficacy: Implications for training effectiveness. *Personnel Psychology*, 46, 125-147.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36, 455-470.
- Million, T. (1996). *Disorders of personality: DSM-IV and beyon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Muris, P. (2002). Relationships between self-efficacy and symptoms of anxiety disorders and depression in normal adolescents sample.

-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2, 337-348.
- Muthén, L. K., & Muthén, B. O. (2006). *Mplus User's Guide*. Fifth Edition.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Raskin, R. N., & Novacek, J. (1989).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 66-80
- Schurman, C. L. (2000). *Social phobia and covert narciss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right Institution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 Smolewska, K., & Dion, K. (2005). Narcissism and adult attachment: A multivariate approach. *Self and Identity*, 4, 59-68.
- 1차원고접수 : 2009. 10. 10.  
수정원고접수 : 2009. 11. 27.  
최종게재결정 : 2009. 12. 12.

##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social phobia –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elf-efficacy**

**Eunmi Kwon**

**Minsup Shin**

**Eunjung Kim**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social phobia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elf-efficacy in this relationship. 360 undergraduate students completed an assessment battery consisting of Covert Narcissism Scale(CNS), Social Self-efficacy(SSES),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SIAS), and Social Phobia Scale(SPS). Data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ed Equational Modeling(SEM).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odel hypothesizing parti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elf-efficacy showed superior fit indices to the alternative models. Therefore, covert narcissism affected social phobia not only by decreasing social self-efficacy but also by itself.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the studies and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social phobia, covert narcissism, social self-efficacy, mediating effects